

전남교육청,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합니다”

3월 정책협의회,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역점과제 추진 방안 협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생의 가치로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합니다’를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및 교육협력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교육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할 2025 전남교육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 1부에서는 ▲ 전남 수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2030교실’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2025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역점과제를 공유하는 분임 토의를 가진 후,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체 협의가 이어졌다.

직속기관들은 ‘공생의 가치’와 ‘글로벌

교육’을 반영한 역점사업들을 제안했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현안과 특색을 반영한 전남교육 역점과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정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K-에듀를 선도할 전남교육 실현에 힘을 실어줬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2025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가 우리 학생들을 전남의 인재로 성장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교육공동체가 더욱 힘을 모아



김대중전남교육감이전남교육정책협의회에서 “글로벌전남교육 실현”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함평군, 제44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어르신 57명 입학... 배움에 대한 열정과 활기 가득

전남 함평군 노인대학이 올해로 44기 입학생 57명을 맞이하며 새 학기의 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19일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회장 조용무)가 전남 노인회지회 대회의실에서 제44기 함평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에서는 이진행 노인대학장의 입학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입학생 대표의 노인강령 낭독과 선서가 진행됐다. 이어 노인대학장의 환영사와 노인회 지회장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제44기 함평군 노인대학에는 57명의 수강생이 입학했으며 11월까지 총 20여 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양, 건강, 시사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군수는 “나이를 잊고 새롭게 배움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용기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노인대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 습득은 물론 친목을 도모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함평군 노인대학은 군민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지난 1982년 개교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1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담양군 대덕면 복지기동대,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앞장

안전발판·LED 무선등·안전손잡이 설치로 생활 안전 강화

담양군 대덕면 복지기동대(대장 오달섭)가 주거 취약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17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6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설치, ▲거동불편 취약계층에게 환경을 개선할 LED 무선등 설치, ▲가스 누출 사고를 예

방할 가스차단기 설치,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복지기동대는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세대의 특성과 필요 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에 이바지했다.

나숙자 대덕면장은 “복지기동대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 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면 복지기동대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이영희 본부장 취임식 “소통과 배려로 건강보험 제도 지속적 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9일(수)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7대 신임 이영희 본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영희 본부장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본부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꼼꼼한 행정 처리로 지역본부의 내실을 단단히 다지고, 직

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조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보험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요구에 부응하여 청렴·윤리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특사경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을 지역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며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신임 본부장은 공단 본부 급여사업실장, 의료비지원실장, 건강검진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일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27회 함평나비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 알림

- 행사명 :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 주최/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 일시 : 2025.3. 21.(금) 14:00 / 식전공연 13:30
- 장소 :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완도군, 도 선정 모범 납세자 3명에게 증명서 전달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전남도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자를 찾아가 증명서를 전달했다. 전남도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재정에 기여한 100명(개인 75, 법인 25)을 2025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고, 이 중 완도군 대상자는 완도소안수산협동조합(조합장 문철원)과 완도읍 박재식, 차일도 씨 등 3명이다.

모범 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로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 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 소재 유료 공영 주차장 79곳의 주차 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 순천·강진 의료원의 30만 원 상당 종합 건강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하는 우대 사항도 추가됐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 납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대신 전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완도/장광춘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